

■ (언론 동향) 2021.10.21. "한국무역신문" 보도

○ 중국 해관총서, 화학비료 수출검역 강화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는 "중국 해관총서가 화학비료 관련 29개 품목에 대해 수출상품 검역을 하기로 하고 지난 15일부터 공식 실시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2917만 톤의 비료를 수출했다. 수출 상위 5개 품목은 각각 황산암모늄(100만2300톤), 요소(58만20톤), 디암모늄포스페이트(49만1400톤), 인산이수소암모늄(14만8400톤), 질소 복합비료(12만3800톤)다.

< 이용석 기자 >

■ (언론 동향) 2021.10.20. "아시아경제" 보도

○ 中, 비료수출 사실상 제한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중국 정부가 비료 수출에 추가 요건을 부과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시간)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에서 비료를 실은 화물 컨테이너들이 발송 준비를 마쳤음에도 지방 정부의 점검 강화로 발이 묶여있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는 "비료를 수출하려면 신설된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며 "국내 판매용이 아니면 사실상 수출길을 막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점검 강화는 지난 15일 세관에서 관련 조치가 시작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도 최근 안정적인 비료 공급과 가격은 농업 생산과 식량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세계 에너지 대란의 여파로 석탄과 천연가스의 원료인 비료는 현재 신고가를 기록 중이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세계 무역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전 세계에서 이미 비료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중국 비료의 최대 구매국은 인도와 파키스탄 등이 있다"고 말했다.

< 조현의 기자 >